

진리의 편에 굳게 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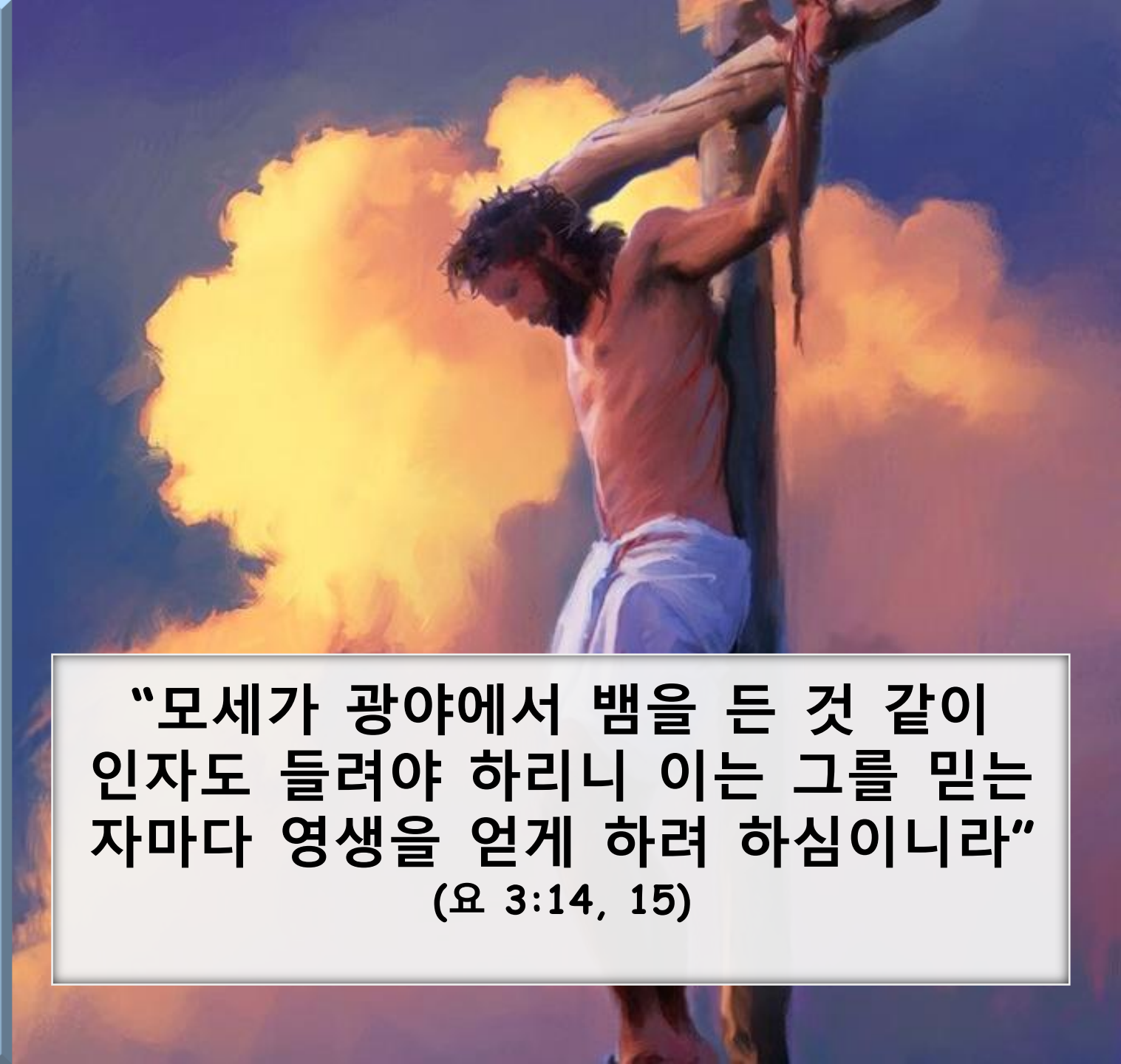


4과 2024년 4월 27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4, 15)



다니엘과 요한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에서 사탄이 정치와 종교를 이용해서 진리에 굳게 서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없애버리려 할 때가 온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세력들은 “진리를 무너뜨리려”할 것이고 (단 8:12) 그 때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일부는 죽임을 당하겠지만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단을 받아 정결하고 깨끗하게 될 것이며 이런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단 11:35)

이 중세 암흑시대에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지켜 내려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진리의 대한 의문:

- ▶ 핍박의 시대.
- ▶ 핍박 중에 굳게 섬.

진리를 지켜냄:

- ▶ 성경말씀을 전함: 왈덴스 사람들.
- ▶ 개혁의 선구자: 잔 위크립.
- ▶ 믿음으로 굳세어 짐: 잔 허스와 그 외 선구자들.

진리에 대한 의문

핍박의 시대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단 7: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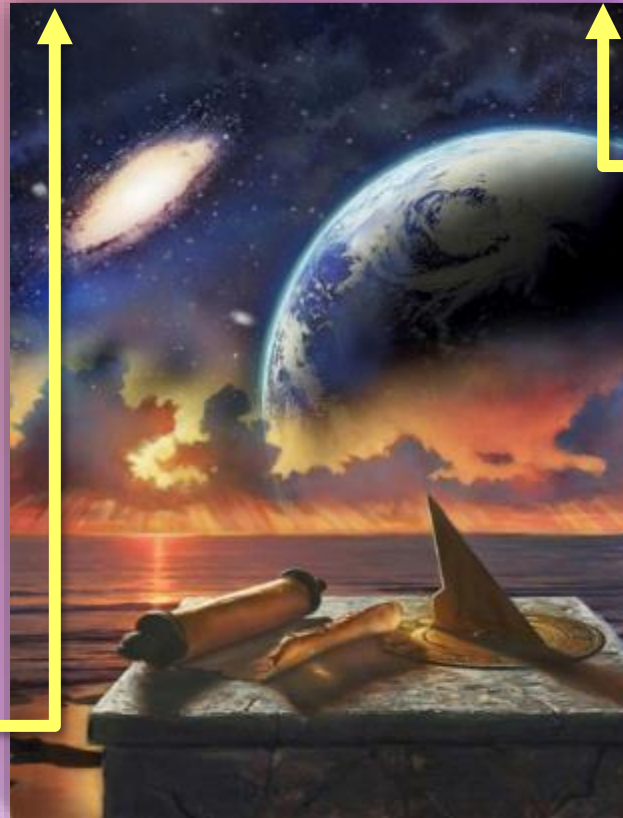
핍박의 시간은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경고되었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단. 7:25;
12:7; 계. 12:14)

1,260 일 (계. 11:3; 12:6)

마흔 두 달 (계. 11:2; 13:5)

여기 다니엘서의 “때”는
일년으로 해석되고 “(두) 때”는
문자 그대로 두배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한 달은
30일입니다.

사십이
개월 × 삼십일 = 천이백
육십일

위의 세 시간들은 모두 하나의 기간
즉 1,260 일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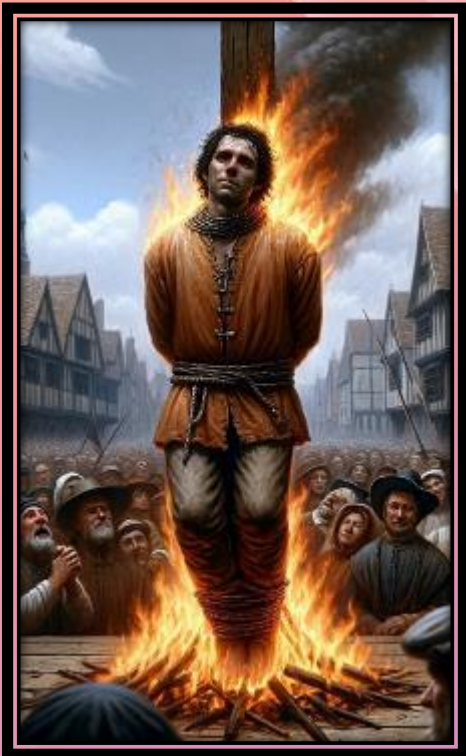
성경의 “하루는 일년”(겔 4:6; 민
14:34)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핍박은 1,26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핍박의 시대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단 7:25)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60년의 핍박의 시간동안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까?

로마제국은 여러 주변 부족들에게 침략을 당했고 열개의 정치적 왕국들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왕국이 나타나 열개의 왕국 중 세 개를 전복시켰습니다 (단. 7:23-25).



하나님께서 미리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충성된 교회를 위한 장소를 준비하셨습니다(계 12:6, 14).

어려움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 피난처를 찾아 진리를 지켜냈습니다(시 46:1-3).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성한 대가로 그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아리우스주의를 받아들인 헤룰리족, 반달족, 그리고 동고트족이 패배하면서 로마교회는 정치적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서기 538년



나폴레옹은 프랑스 장군 베르티에게 교황을 포로로 잡으라고 명령했고 로마 교회는 권력을 잃었습니다.

서기 1798년



핍박 중에 굳게 섬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서 1:3)



정치적 권력을 갖게 된 로마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종교 법들을 지키라고 강요하기 시작했는데, 그 법들 중 대부분은 진리에서 벗어난 것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로마교 지도자들은 점점 더 타락하고 부패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에 반항하지 못하도록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에게 가장 귀중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파괴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경과 유다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싸웠던 충실한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유 1:3).

말씀의 능력으로 새 활력을 얻은 그들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0의 약속으로 힘을 얻은 그들은 생명의 면류관의 약속을 붙잡고 생명이 다할 때까지 충성했습니다.



진리를 지켜냄

성경말씀을 전함: 왈덴스 사람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행 5:29)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모두 바친
프랑스의 부유한 사업가 피터 왈도(Peter Waldo, 1140-
1218)는 ‘리옹의 가난한 자들’ (Poor of Lyon)로 알려진
“왈덴스 (Waldenses)”를 창설했습니다. 교황 알렉산더
3세도 청빈한 삶의 서약을 받아들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교황 인노첸시오 3세의 승인을 받아
청빈한 삶의 서원을 한 아시시의 프란시스(1181-
1226)가 프란체스코 운동을 창설했습니다.

당시 교황 루키우스 3세는 피터 왈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자들로 단죄했고 그들은 핍박을 받아
거의 소멸되었지만 프란체스코 운동은 로마 교회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왜 왈덴스인들이 핍박을
받았을까요?

프란체스코파는 교황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왈덴스인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개혁의 선구자: 잔 위크립

왈덴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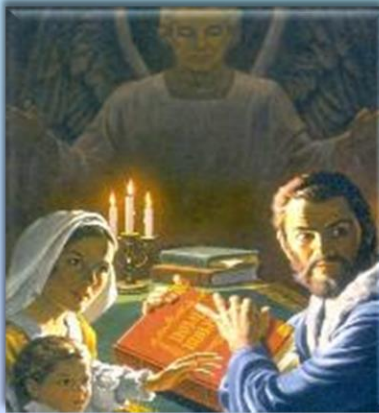
그들은 최초로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때는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금지된 책이었기 때문에 왈덴스 사람들은 로마교황을 섬기는 사람들을 피해 동굴에 숨어서 손으로 베껴 적었습니다.



왈덴스 사람들은 항상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서 적절한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었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성경 진리를 수백 년 동안 보존했고 그들의 충실함과 헌신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남부와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테의 마을사람들 모두가 이 성경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따랐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이 마을들의 대부분을 파괴했고 주민들을 학살했습니다.

개혁의 선구자: 존 위클리프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잠 4:18)



존 위클리프(1324-1384)는 삶의 대부분을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데 바쳤습니다. 위클리프는 왜 이런 삶을 택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변화시키셨고, 둘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진심으로 연구하고
성령님께서 마음을
감동하실 때 마음을 여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히 4:12).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위클리프는 국가의 공식 교회(로마교회)의 위협을 받았지만 그는 영국의 고위 관리들의 신임을 얻었고 (로마)교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1428년에 위클리프의 뼈를 무덤에서 파내어 불태웠고 그 재를 강에 뿌렸습니다. 그의 흩어진 재는 위클리프가 남긴 성경이 세계로 퍼져 나간 상징이 되었습니다.

존 위클리프가 밝힌 작은 진리의 빛은 보헤미아의 존 후스에게 전해졌고 이 빛은 계속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리는 개혁의 새벽이 올 때까지 계속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새 날이 밝아왔습니다.

믿음으로 굳세어 짐: 존 허스와 그 외 선구자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일 5:12)

존 위클리프 후에 새로운 개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개혁을 시작하고 위협과 죽음을 직면할 용기를 얻었을까요?



존 허스 (1370-1415)



제롬 (1360-1416)



틴데일 (1494-1536)



휴 라티머 (1490-1555)



- ▶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 ▶ 예수님은 그들이 시련을 극복하고도 남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 ▶ 그들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같이 당한다는 사실을 기뻐했습니다
- ▶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세상을 향한 강력한 간증이었습니다
- ▶ 그들은 자신들의 현실을 넘어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 ▶ 그들에게 죽음은 이미 패배한 적이었습니다
- ▶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굳게 잡았습니다.

존 허스는 투옥되었고 결국 화형을 당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큰 자비를 베푸셨고, 지금까지 얼마나 놀랍게 나를 붙들어 주셨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옛날에 그분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 사악한 시기에 자신의 양심대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용기와 확고함,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고, 그들의 동기가 불순하다고 비난을 받을 것이며, 그들의 최선의 노력은 오해를 받고, 그들의 이름은 사회에서 쫓아 내야 할 악한 사람들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흐려 놓고 그들의 이해할 능력을 잃게 하려고 온갖 속임수를 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순수해 질수록,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들의 결심이 더 강해질수록, 사단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기 위해 더욱 맹렬하게 싸울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굳게 붙잡으려면 가장 확고한 신뢰와 가장 영웅(헌신)적인 목적이 필요합니다.”